

육상새우양식장, 급성간체장괴사병(AHPND) 확진

-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어린 새우 폐사율 높아

전라남도 완도군, 보성군, 무안군 소재 흰다리새우 육상양식장 3개소에서 양식 중인 새우가 급성간체장괴사병(AHPND)으로 확진됨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21일자로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경보를 발령하였다.

새우 급성간체장괴사병(AHPND)은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어린 새우가 감염될 경우 폐사율이 100%에 이를 수 있어 제1종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선 해당 양식장에 대한 살처분, 격리·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새우 전염병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새우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새우 양식장의 사육수 소독 관리 등 새우 양식장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진희 (044-200-5610)
		담당자	사무관	안종관 (044-200-562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방역과	책임자	과 장	권문경 (051-400-5670)
		담당자	연구관	홍성열 (051-400-5675)

참고

급성간췌장괴사병(Acute HematoPancretic Necrosis Disease, AHPND)

□ 개요

- (원인 병원체) 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 중에서 독소 생성 관련 유전자(Pir A, Pir B)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균주
- (폐사율) 후기유생(post-larvae) 또는 치하(juveniles)를 입식 후 빠르면 10일, 30~35일 이내에 급격히 폐사하여 100%에 이르기도 함
 - *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나 새우류에 전염성이 높고, 폐사율도 높아 살처분 대상인 제1종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 관리 중('21~)
 - ** 질병에 감염되기 쉬운 품종 : 흰다리새우(*Litopenaeus vannamei*), 얼룩새우(*Penaeus monodon*)

□ 국내·외 최초 발생 현황

- (국내) 전남, 인천 및 경기지역에서 국내 최초 발생('16년)
- (국외) 중국('09), 베트남('10), 말레이시아('11), 태국('12), 멕시코('13), 필리핀('14), 미국('17), 일본('20)

□ 감염특성

- (전파기작) 수평감염(구강 또는 오염된 종자·물·생물이동 등)
- (주요 감염장기) 간췌장, 위, 중장 및 후장
- (임상 및 병리 소견) 간췌장의 백화, 간췌장상피세포의 괴사 및 박리·염증



정상새우(a) 및 감염 새우(b) 간췌장 퇴색 및 위축

* MG: 중장, HP: 간췌장, ST: 위



<AHPND에 감염된 새우의 임상 증상>